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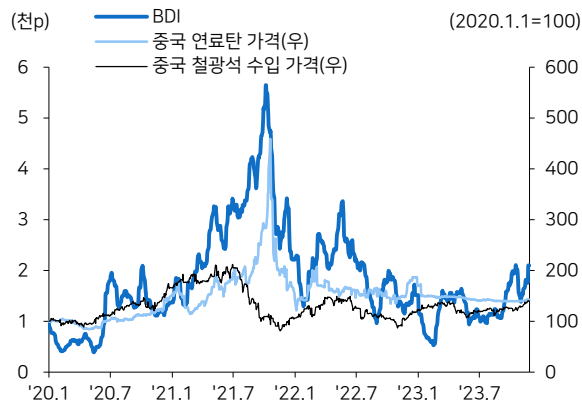
2023. 11. 28 (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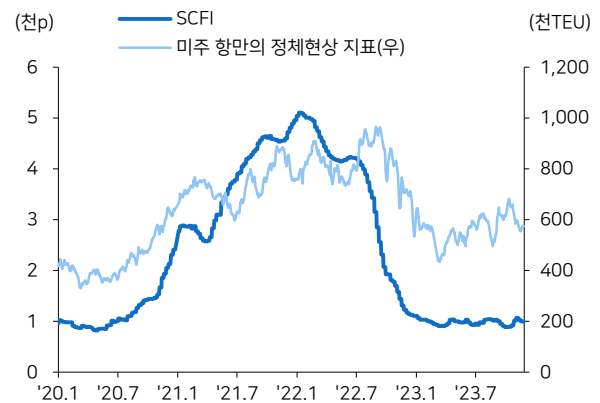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59.0p(+24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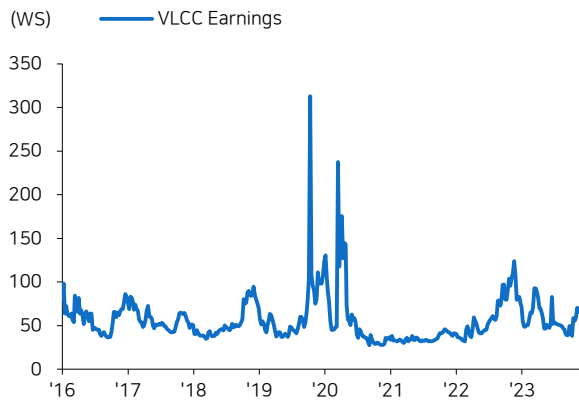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93.2p(-6.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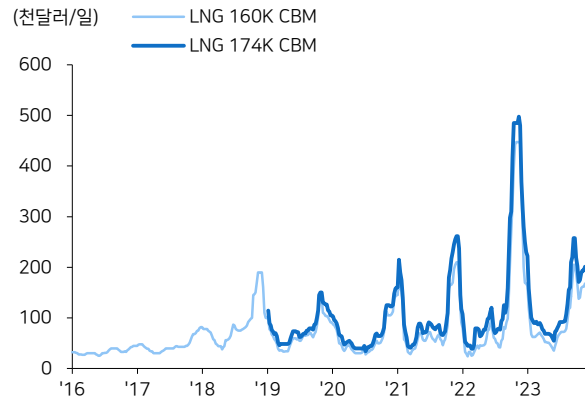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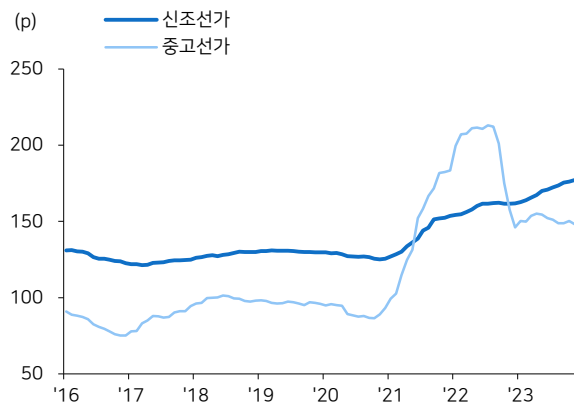
65.3p(-4.3p WoW)



LNG Spot 운임

167.5천달러(- WoW)
201.3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7.1p(+0.4p WoW)
148.3p(-2.8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63.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orian LPG linked to single giant ammonia carrier order at Hanwha Ocean

한화오션이 Dorian LPG로부터 VLAC를 최대 2척 수주했다고 보도됨. 93,000CBM급 선박을 척당 1.25억달러에 수주했고, 2026년 9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옵션 1척이 포함된 계약으로 알려짐. 한국조선해양 측은 2027년 슬롯을 제시했지만, 한화오션이 2026년 슬롯을 제시해 수주할 수 있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inyurl.com/sthme6hz>)

HMM slaps emissions scheme surcharge of up to \$67 on boxes

HMM이 EU ETS 규제에 따라 추가 컨테이너션 비용을 부과할 예정으로 보도됨. 1월 1일부터 EU ETS가 시행되는데, 운임 상승을 통해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침으로 언급됨. 유럽-북미 항로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데, reefer container 당 62유로(68달러), TEU당 41유로로 알려짐. HMM의 추가 비용 부과는 10월 발표된 CMA CGM의 비용보다도 높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tinyurl.com/bddyn9fw>)

Aegean Shipping turns to Cosco to build its first ice-class tankers

Aegean Shipping이 중국 Cosco에 첫 ice-class PC탱커를 발주했다고 보도됨. 114,000DWT급 LR2 2척으로 EEXI III를 충족하는 선박으로 알려짐. 척당 6,300만달러에 계약됐고, 2026년말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https://tinyurl.com/yjicvusr>)

Huge Aramco CCS project race puts trio in frame for prize

최소 3개 업체가 사우디 Aramco의 CCS 프로젝트 EPC 계약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됨. 장기적으로 60MTPA의 CO2 포획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려짐. Saipem, Tecnimont와 Larsen&Toubro가 입찰에 준비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언급됨. 계약규모는 8억~10억달러로 알려짐. (Upstream) (<https://tinyurl.com/yfveazea>)

Huge Aramco CCS project race puts trio in frame for prize

Gazprom이 2024년 CAPEX를 175억달러(1.75조루블)로 축소할 계획으로 보도됨. 2023년에는 약 2조루블을 투자한 바 있음. 핵심 투자 목표는 Yamal 반도 및 극동(사할린 블록3) 가스전 개발, Sila Sibiri 1 가스 파이프라인 업그레이드로 알려짐. (Upstream) (<https://tinyurl.com/5bkhwm8>)

티웨이항공, 크로아티아 노선 드디어 띄운다...첫 유럽 취항

티웨이항공이 크로아티아 노선 취항을 추진해 첫 유럽 취항에 나섰다 보도됨. A330-300을 인천에서 띄워,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를 경유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하는 노선을 내부 검토 중으로 알려짐. 2020년 LCC 최초로 유럽 노선 슬롯을 할당 받았지만, 러우전쟁 발발로 운항하지 못했다고 알려짐. 키르기스스탄 경유는 전쟁지역을 피하기 위함으로 언급됨. (머니투데이) (<https://tinyurl.com/4hknkkuc>)